

나실인의 성별 생활

■ 민수기 6장 1~8절

■ 27장(통27), 423장(통213)

■ 2018년 8월 5일

본문의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실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 받음과 동시에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을 성별(聖別: 성스럽게 구별됨)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라고 말씀했습니다(1~2절). ‘나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은 특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우입니다.** 삼손과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모님이 서원해서 드린 경우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기 스스로 서원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나실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나실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엡5:2).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순종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롬10:9~10). 이렇게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실인과 같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몸을 성별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3~8절).

나실인이 되면 자신의 몸을 성별하게 지켜야 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3~4절).**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그리고 포도즙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어 이성을 잃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몸이 이미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가 기쁨, 풍성함, 잔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즉 포도주를 먹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하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가까이 두는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원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합3:18).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5절).**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게 한 이유는 **나실인이라는 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실인에게 말씀을 벗어나도록 권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머리털은 피와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된 우리도 성도의 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영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어둠 가운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희생하게 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6~7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6:23).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결과로 시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죄는 동과 서처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깨닫고 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인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 대한 인정 때문에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지 말고, 양보해주지도 말고, 인정을 끊더라도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끌려 용납해주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8절).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인 것을 기억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성별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실인과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나실인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들입니다. 포도주와 술을 멀리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표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되 인정까지라도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나실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1~2절).
2. 나실인이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1~2절).
3. 나실인이 성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설명해 보세요(3~8절).